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50 호

2021 년 6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 젠더 이퀄리티 (TGE)> ROUND2 참가 기업 모집
2.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V100 활성화 토론회 결과 공유 (5/25)
3. P4G 정상회의 부대 행사 <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1.5C and Net-Zero Future> 결과 공유 (5/28)

■ 본부 소식

1.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 SDGs 소식

1. [COVID-19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세라믹기술원
2. [SDGs 솔루션] 중고 의류 전용 온라인 판매 시장

■ UNGC 회원 뉴스

1. SK 이노베이션, 한국석유공사와 CCS 사업...ESG 경영 강화
2. 카카오, 첫 ESG 보고서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발간

3. SKT, 2020 년 사회적가치 1 조 9457 억원 창출
4. 힐라 홀딩스, ESG 보고서 발간•UNGC 가입...ESG 경영 박차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 젠더 이퀄리티 (TGE)> ROUND2 참가 기업 모집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젠더이퀄리티 프로그램(TGE) 2차 라운드 등록 시작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 프로그램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성의 비즈니스 리더십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녀 간 경제 격차를 줄이려면 257년이 걸릴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로 진전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성 평등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UNGC 회원사를 TGE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TGE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달성함으로써 기업이 성 평등 지지 약속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TGE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과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야심차고 현실적인 기업 목표 설정
- 성평등 학습 기회 참여와 맞춤형 실행 계획 수립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 사용을 통한 자사의 성 평등 현황 파악
- UN 파트너, 전문가, 동종업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 평등 전략 수립
- 자사 여성 임원 및 성 평등 사례 소개

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TGE는 성평등에 관한 글로벌적 시각과 지역 정보, 파트너 및 실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더 알아보기

2.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V100 활성화 결과 공유 (5/25)

EV100 활성화 토론회 결과 공유

2021년 5월 25일

일시: 2021년 5월 25일 (화) 오전 10시~12시

장소: 전경련회관 타워동 3층 오키드룸

지난 5월 25일(화)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V100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송옥주 국회의원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글로벌 소유 및 임대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EV100 (Electric Vehicle 100%)을 활성화 하는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좌측부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연구원, 양춘승 책임이사, 사이먼 스미스 (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관 대사, 송옥주 의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 과장

1. 인사말 및 축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은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친환경 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EV100 등의 이니셔티브가 함께 활성화되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로 지혜를 모아 기업들이 EV100 사업에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관으로 K-EV100 을 출범하였으나 글로벌 EV100과 유기적 관계를 공식화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국내의 EV100과 글로벌 EV100이 상호 연계하는 계기를 만들어 국내 기업의 EV100 참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춘택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탄소중립이 시대적 요구로 자리잡은 만큼,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기업의 선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참석한 기업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산드라 롤링 기후그룹 (Climate Group) EV100 책임자는 영상 축사를 통해 각각 “K-EV100 이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EV100과 연계돼 전 세계에 모범사례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국제적으로 중요한만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 라고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사이먼 스미스 (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관 대사는 “COP26 개최에 앞서, 영국은 가능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EV100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기업의 협업을 지지하겠다”라고 말하며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 [발제 1] EV100 소개 및 국내외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송부문 기후변화 대응 동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연구원은 먼저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중 수송 부문 비중은 각각 23.6%, 13.5%이며, 국내 수송 부문은 국내 석유 소비 중 32%를 차지하는데, 특히 승용차, 버스, 트럭 등 도로수송이 절대적”이라며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소중립 달성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원은 또 “환경부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일명 K-EV100)의 가속화와, 무공해차 전환에 참여한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 전기자동차 확대 관련한 민간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EV100’과 적극 연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발제 2]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방안

이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 과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 과장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을 보면 수송 부문이 약 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송 부문은 생활과 굉장히 근접 거리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부문이다”며 “행정 공공부문에서 올해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 있어서 80퍼센트 이상을 전기차, 수소차로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인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1 무공해차 30만 시대 달성이라는 환경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기 택시 지원 강화, 전기 택시 도입 협약 강화 및 전기 상용차 보급물량 확대 등 추진 중인 정책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



UNGC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

4. [패널토론] 친환경차 전환에서 겪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논의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친환경차 전환에서 겪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논의>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는 **앞선 두 발제자와 함께 경기연구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박지영 위원, UNGC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경기연구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EV100 이니셔티브 등 자발적 규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체계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환경부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보급확대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지영 위원**은 “유럽과는 달리 차종의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식공유가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보다는 워크샵 등의 지식 공유의 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만큼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해서도 기후과학에 기반해서 조금 더 야심차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전기차 전환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희원 연구원 (T. 02-749-2149)

3.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V100 활성화 결과 공유 (5/25)

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1.5°C and Net-Zero Future (P4G 정상회의 부대행사) 결과 공유

2021년 5월 28일

일시: 2021년 5월 28일 (금) 오전 10시~12시
장소: 온라인

지난 5월 28일(금),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WWF,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가 공동 운영하는 CoREi(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가 2021 P4G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1.5°C and Net-Zero Future >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글로벌 행사에는 Race-to-Zero, SBTi 등 주요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전문가가 참여해 탄소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기후 이니셔티브 관계자 발표

먼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이성은 연구원**이 CoREi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먼저 “현재 기준 1,400여개 기업이 탄소감축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CDP 데이터 결과에 따르면, 1.5 °C 관련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도 성장세임을 알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RE100 이니셔티브는 현재 3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참여 기업 중 77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90% 이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현재 도입과정의 시행착오를 넘어 효과를 내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UNGC 하이디 후스코 (Heidi Huusko) 기후 환경 정책 총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후스코 총괄은 먼저 △CPLC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SBTi (Science Based Target) △Business Ambition for 1.5°C 등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현재 SBTi 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배출량의 25%를 줄이는데 이미 성공”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SG 에 있어 기후변화는 아주 중요하며, Business Ambition for 1.5°C 를 이행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경제 성과는 26조 달러에 달하고, 2030년까지 약 65만개의 저탄소 관련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이성은 연구원 발표



UNGC 하이디 후스코 기후 환경 정책 총괄 발표

2.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신중관 에너지기술 부문 담당

이어 **LG 에너지 솔루션 신중관 에너지기술 부문 담당**이 자사의 기후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신 담당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글로벌 제조공장들을 소개하며, 폴란드와 미국 공장의 경우, 100% 재생에너지 구동 중이며, 중국 공장은 15%, 한국 공장은 17%의 RE100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 시 개당 온실가스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고객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LG의 중요한 비즈니스 포인트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2030년을 목표로 RE100과 EV100 선언하였고, 내부적으로는 2025년까지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중” 이라고 전했습니다.

3.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패널토론 및 Q&A

이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WWF 미국 David Riley 국제기업기후협력 디렉터 (Director for International Corporate Climate Partnerships) 이 REBA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이니셔티브를 소개했습니다. Riley 디렉터는 “REBA는 3년 전 처음 탄생했으며, 현재 빠르게 성장하여 약 250개 기관들이 참여 중” 이라고 밝히며 “WWF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자들, 정책 커넥션, 정책 입안자들과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었다”고 하며 기업과의 협력 사례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WWF멕시코의 Luli Pesqueir 수석 (Senior Corporate Officer) 이 Ren Mx 이니셔티브를 소개했습니다. Pesqueir 수석은 “Ren Mx는 기업재생에너지조달 가속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로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거래를 돕기 위해 구입 프로세스를 8단계로 구성 및 정형화 하였다”며 이를 알리기 위한 워크샵, 컨퍼런스 등의 노력을 소개하고 Audi, HSBC, Nestle, Puma 등 Ren Mx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차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WWF 미국의 Cihang Yuan 프로그램 오피서가 중국의 CBH (Climate Business Hub) 이니셔티브를 소개했습니다. Yuan 오피서는 먼저 중국 내 재생에너지현황에 대해 공유하며, “중국 내 재생에너지의 75%가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사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CBH가 운영하고 있는 4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WWF 호주의 Pip Harley 프로그램 디렉터 (Program Director) 이 호주의 BRC (Business Renewable Centre) 이니셔티브를 소개했습니다. Harley 디렉터는 “호주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 중이며, 최근 정부 차원의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며 BRC 이니셔티브의 3가지 목표가 △재생에너지 PPA 양 확대 △재생에너지 PPA 질 개선 △PPA 과정 접근성 증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호주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출국이 되도록 도움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측면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 후에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본 행사는 30일, 31일 양일간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과 다양한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며 종료되었습니다.



Luli Pesqueir Ren Mx 수석 발표



각국 토론자들, 사회자, 발표자와 모더레이터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희원 연구원 (T. 02-749-2149)

본부 소식

1.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2021 리더스 서밋, 세계 각지에서 모인 비즈니스 리더, 정부 관계자, 시민 사회 지도자, 학계가 참가하는 금년 최대규모 행사

- **일시:** 2021년 6월 15-16일 / 온라인 개최 (26시간)
- **주요 일정:** 기초연설 / 환영 리셉션 / 실시간 질의응답 / 분과 세션 / 네트워킹 / 온라인 전시관 / 온디맨드(On Demand) 영상 세션 등 [\[일정표 바로가기\]](#)

· 연사: 자세히 보기

UNGC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은 전 세계 수천 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및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논의하는 UNGC의 가장 큰 연례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리더스 서밋은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 사회경제적 불평등 악화, 부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UNGC는 본 행사를 통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진전 상황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독려할 것입니다. 전략적 공동노력에 대한 포부를 높이고, 공정성과 탄력성을 갖춘 세상을 재건하려는 수천 명의 글로벌 리더와 SDG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Themes)

이번 서밋에서는 다섯가지 주요 이슈와 더불어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노동자

권익, 양질의 일자리, 기후변화 대응, 반부패,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노력을 촉구합니다.



주요 행사

이번 리더스 서밋에서는 디지털 이벤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수천 명의 리더들과 함께 26 시간 동안 진행되는 회의와 지역별 분과 세션, 공연, 전시회 및 상호간 네트워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6시간 동안의 콘텐츠

글로벌 리더들은 총회와 분과세션에서 자신의 인사이트와 SDG 구현 사례 및 공동노력이 주도하는 변화의 방식에 대해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을 이끄는 유엔과 정부, 기업 및 학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파빌리온

리더스 서밋 파빌리온(Leaders Summit Pavilion)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파트너들이 SDGs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 관련 영상 공유 및 세션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네트워킹

미래를 이끄는 수천 명의 지속가능성 리더들과 원격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우리는 협력과 대담한 행동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1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세라믹기술원



2. UNGC 가입: 2019. 9. 5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라믹 분야의 첨단 신소재 세라믹 연구개발은 물론 시험·분석·평가, 기업지원,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의 미션을 가지고 세라믹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대한민국 유일한 세라믹 전문 연구기관입니다.S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계약업체를 위한 예산 조기입행,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와 같은 자체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내창업보육센터 총 47 개 입주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감면하였습니다. (3 월~5 월까지 약 17 백만원) 그리고 당초 계획된 예산 집행률 16.6%(0.95 억원)대비 대폭 상향된 61.9%(3.54 억원)을 상반기 예산 집행률 목표로 설정하여 계약업체의 자금확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이 어려워진 지역 화훼농사의 장식용 꽃을 매월 구입(약 1 백만원)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간 ‘꽃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공헌 확대

지역사회의 코로나 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CEO 의 월급을 일부 반납(3~6 월, 월별 30%)하고, 200 여명 직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된 성금 약 1 천 4 백만원을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4 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분기별로 진행하던 헌혈을 월별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2.23)에 따라 비상운영체계를 구축(2.24)하여 임직원의 건강, 입주기업 상황, 전국 세라믹업체의 피해현황 등을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과 전파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추진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체계 가동

CEO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대응조직을 즉시 운영하여, 코로나 19 관련 외부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 방역 관리(경남 진주, 경기 이천, 경기 부천), 직원 복무관리, 정부유관기관·지자체 연락체계 유지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직원, 입주기업, 전국 세라믹 업체가 감염병의 출처와 전파 속도를 고려한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복무지침 시행을 통한 직원 복무관리

코로나 19 의심증상자, 접촉자, 확진자 등을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부서별 적정 비율을(20~50%) 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택근무 시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부서장과 전담부서 실무자는 정상근무하여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출장과 여행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해외여행, 위험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후 결과에 따라 출근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연근무제 활성화, 구내식당 시차운영(2 부제), 다중이용시설(휴게실, 운동장, 헬스장 등)을 일시폐쇄하여 코로나 19 감염과 전파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설치로 발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당, 엘리베이터 등 이용시설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배너를 설치하여 코로나 19 예방 인식을 환기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손세정제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구내식당 입구 등에 비치하였고, 전 직원 1 일 2 회 발열과 증상을 체크하는 등 절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장기화된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매(Buy)-소비(Consume)-기부(Donate)를 부서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여 직원이 자유롭게 구매, 소비한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도록 캠페인을 개최하고, 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SDGs 솔루션] 중고 의류 전용 온라인 판매 시장



[SDGs 솔루션] 중고 의류 전용 온라인 판매 시장

*Swap.com*은 이용자들이 중고 의류를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Swap.com은 온라인 판매 시장이자 위탁 서비스입니다. 의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Swap.com에 의류 소유권을 위탁하고, 의류가 판매되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Swap.com 창고로 중고 의류를 배송하면, 회사가 마케팅과 물류를 관리하고 판매 전까지 의류를 보관합니다.

플랫폼은 상품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은 깨끗하게 세탁되어야 하고, 얼룩이나 마모 흔적이 없어야 하며, 버튼과 지퍼 모두 잘 작동해야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 220만 개의 중고 의류 제품이 거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숲 면적 280,000 km²에 맞먹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약 150억 리터에 달하는 수자원을 절약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본 플랫폼에는 25,000개 이상 브랜드의 230만개 상품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Swap.com 사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국인들은 매년 평균 36킬로그램의 옷을 버리고, 섬유, 가죽, 고무는 미국이 배출하는 고체 쓰레기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Swap.com 사는 사람들이 중고 의류를 사고 팔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의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새 옷보다 중고 옷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wap.com 은 230 만 품목 달하는 의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재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SK 이노베이션, 한국석유공사와 CCS 사업...ESG 경영 강화



출처: SK 이노베이션

- SK 이노베이션은 그린 밸런스를 통한 ESG 경영 강화 차원으로,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에 관한 국책과제 협약을 26일 체결했음
-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00만톤 이상 CCS 구축을 목표로 잡고 그 첫번째 단계로 2022년 6월 천연가스 생산이 종료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 SK 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최적의 탄소 포집(이하 CC) 기술 검증을 통해 사업 타당성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CCS 사업 진행 시 참여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업계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중규모 시설이 전무했다며, 동해가스전은 국내 CCS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실증플랫폼으로 평가함

뉴스웨이

2. 카카오, 첫 ESG 보고서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발간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출처: 카카오

- 카카오가 처음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목표와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간
- 카카오는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지난 4 월에는 국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중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을 획득
- 2023 년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음
- 지난 4 월 '카카오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를 수립하고 공유하기도 했으며, 지난 1 월 '카카오 인권경영선언문'제정,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 발표,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이사회 평가 제도 도입 등의 활발한 활동

뉴시스

3. SKT, 2020 년 사회적가치 1 조 9457 억원 창출



출처: SKT

- 지난해 SK 텔레콤이 온실가스 감축,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 노력을 가하고 ESG 경영을 강화한 결과, 2020 년 '비즈니스 사회성과'가 2362 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 증가했고, '사회공헌 사회성과'도 513 억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
- 제품·서비스 영역에서는 ICT 기반 사회적가치 창출 모델 지속 발굴 및 확대를 통해 2018 년 467 억원, 2019 년 1,670 억원, 2020 년 2579 억원의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사회적가치를 본격 측정된 2018 년과 비교해 실적이 5.5 배 가량 증가한 수치
- 이외에도 노동, 동반성장, 환경 공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워크 프롬 애니웨어(work from anywhere)' 제도 도입, 프런트홀(기지국 장비 간 유선 통신망) 기술 공동개발 및 세계최초 상용화 주도 등의 노력을 보임
- 박정호 SK 텔레콤 CEO 는 앞으로 친환경 ICT 기술 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기여, 글로벌 선진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새로운 ESG 스토리를 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뉴시스

4. 휠라홀딩스, ESG 보고서 발간·UNGC 가입...ESG 경영 박차



- 휠라는 'YOUR FILA IMPACT'를 '2020 년 ESG 슬로건'으로 제정, '2020 휠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펴내며 2021 년을 ESG 역량 강화의 원년으로 삼음
- 휠라는 필(必)환경 시대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신발 R&D 센터인 휠라 랩(FILA LAB)을 운영하고,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2023 년까지 중국 및 베트남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 강령(FILA Group Global Code of Conduct)' 및 '휠라 그룹 글로벌 인권 정책(FILA Group Global Human Rights Policy)'을 수립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
- 지속 가능성에 관한 글로벌 차원 협력을 위해 GCM(Global Collaboration Meeting)을 매년 2 회씩 진행하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임
- 휠라홀딩스는 '글로벌 지속가능 태스크포스팀(TFT)'도 구성하며 "ESG 실천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함

머니투데이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5 월 18 일부터 6 월 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SK 주식회사

2. COP/COE 제출회원

5 월 18 일부터 6 월 1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로이포스
- BPW 한국연맹
- 한국전력기술
- 한국도로공사
-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즈
- 부산국제교류재단
- 한국가스기술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한전 KPS,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CJ 대한통운

<1-2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유니베라, 슬로워크, 이알엠코리아, 길바이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환경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국제협력단,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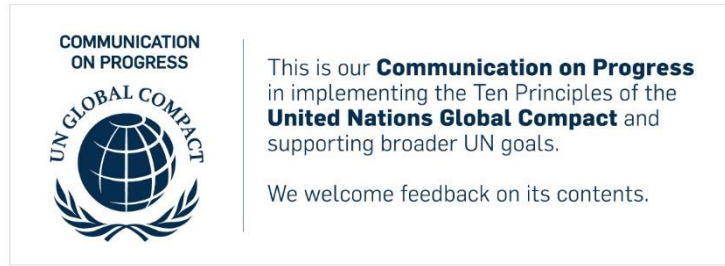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박희원 연구원